

제 1 교시

국어 영역

홀수형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일찍이 노수신이 편안하게 앉아 있는데, 산속의 절에서 글을 읽고 있던 생원 박광전이 찾아왔다. 노수신이 먼저 그에게 물었다.

“산속의 절에서 무슨 책을 읽었느냐?”

“당나라 한유의 문장을 읽었습니다.”

“몇 번이나 읽었느냐?” / “50번 정도 읽었습니다.”

“왜 그리 적게 읽었느냐?”

“마음을 정성스럽게 하고 깊이 생각하며 읽었기 때문에 더딜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읽은 내용을 하나하나 모두 마음속에 자리 잡게 하느라 괜히 숫자만 세지 않았느냐?”

“독서할 때 한 줄을 열 번 생각하려고, 비록 이런저런 생각들 다 잡았지만 헛되이 숫자만 센 경우가 절반이 넘습니다.”

“맞다. 그것은 사람이면 누구든지 독서할 때 지니게 되는 커다란 병폐다. 독서할 때 비록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제멋대로 든다고 해도, 책을 읽은 횟수가 천만 번에 이르게 되면 그 내용이 정확하고 세밀하지는 못해도 결국 내 것이 되는 법이다. 그러나 마음을 정교하고 치밀하게 하여 독서한다고 해도, 책을 읽은 횟수가 50번밖에 되지 않는다면 끝내 내 것이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독서하는 방법 가운데 가장 좋은 길은 많이 읽는 것이다.”

내가 나랏일로 서에 류성룡 선생을 뵈는 적이 있다. 선생은 “그대의 문장을 보니 매우 수준이 높구나. 어떤 책을 읽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서로 묻고 대답하게 되었는데, 내가 일찍이 들은 노수신의 독서법에 대해 얘기했다. 그러자 서에 선생은 “결코 그렇지 않다. ‘생각할 사(思)’자는 발과 마음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러므로 독서란 마음으로 해야 한다. 마치 밭을 경작하는 사람이 조금씩 조금씩 땅을 일구는 것처럼 말이다.”라고 하셨다.

①노수신과 ②류성룡의 말은 각자 깨달아 얻은 것이 있다. 그러나 내가 일찍부터 시험해 본 바로는 제멋대로 이리저리 날뛰는 마음을 다잡아 독서하는 일이 가장 어려웠다. 따라서 노수신의 독서법이 이치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겠다.

- 「노수신과 류성룡의 독서 방법」 -

1. ①, ②가 할 수 있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①: 필요한 정보를 위주로 내용을 선별해서 읽어야 한다.
 - ② ②: 책을 읽을 때에는 선현들이 지은 좋은 글만을 골라 읽어야 한다.
 - ③ ③: 책의 내용 중 기억해야 할 내용들을 꼼꼼히 기록하며 읽어야 한다.
 - ④ ④: 읽는 책과 관련 있는 여러 책의 내용을 참고하며 읽어야 한다.
 - ⑤ ⑤: 정성을 다해 책의 내용을 하나씩 정밀하게 이해하며 읽어야 한다.

2. 윗글의 글쓴이가 선호하는 독서 방법을 <보기>의 ‘정보 시대’에 적용 할 때, 예상되는 결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정보 시대인 오늘날 매일같이 새로운 정보가 쏟아지며 급격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시대에는 남보다 빨리 많은 양의 지식을 터득해야만 삶 속에서 부딪히는 여러 문제에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많은 지식은 급속도로 발전하는 세계를 살아가는 강력한 무기가 아닐 수 없다.

- ① 실제 상황과 동떨어진 관념적 사고에 치우쳐 정보 시대의 흐름에 뒤처지게 될 것이다.
- ② 책의 내용을 이해하는 마음이 경직되어 정보 시대에 필요한 많은 양의 지식을 습득하지 못할 것이다.
- ③ 책에 담겨 있는 내용을 편향되게 이해하여 정보 시대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왜곡된 시선을 갖게 될 것이다.
- ④ 책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함으로써 정보 시대에 마주하게 되는 문제 현상들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할 것이다.
- ⑤ 한 책을 여러 번 읽는 데 치우쳐 새로운 지식을 폭넓게 습득하지 못함으로써 사회의 급속한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3. 윗글을 참고할 때 상황에 알맞은 독서 방법을 선택한 학생을 모두 고른 것은?

갑 : 많은 사람 앞에서 책 내용을 설명하고 책을 추천하는 발표를 하게 되어서 노수신의 방법대로 책을 읽었어.

을 : 책을 통해 복잡한 마음을 다스리고 삶의 교훈을 얻고 싶어서 류성룡의 방법대로 책을 읽었어.

병 : 일주일 안에 독후감을 세 편을 제출해야 하는데 좋은 평가를 받고 싶어서 노수신의 방법대로 책을 읽었어.

정 : 좋아하는 사람에게 책을 선물하고 싶어서 서점에서 책을 고르며 류성룡의 방법대로 책을 읽었어.

- ① 갑, 을
- ② 갑, 병
- ③ 을, 병
- ④ 을, 정
- ⑤ 병, 정

[4~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루소의 『인간 불평등 기원론』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온다. 사슴을 사냥하기 위해서는 두 명의 사냥꾼이 힘을 합쳐 자신이 맡은 길목을 지켜야 한다. 토끼를 사냥하기 위해서는 한 명의 사냥꾼만으로도 충분하다. 토끼를 사냥했을 때 얻는 이익보다 사슴을 사냥할 때 얻는 이익이 더 크다. 사냥꾼 갑과 을이 함께 사슴을 사냥하기로 약속하고 각자 맡은 길목을 지키고 있었는데, 그 옆으로 토끼 한 마리가 지나간다. 이때 사냥꾼 갑과 을은 토끼를 잡으러 쫓아가야 할지, 사슴을 잡기 위해 기다려야 할지 고민하게 된다. 사냥꾼 갑과 을의 전략은 ‘사슴을 잡는다.’와 ‘토끼를 잡는다.’, 두 가지가 된다. 만일 사슴을 잡기로 했다면 서로 협력(cooperation)하는 쪽을 선택한 것이므로 C로 표시하고, 토끼를 잡기로 했다면 상대방을 배반(defect)하는 쪽을 선택한 것이므로 D로 표시한다. 이때의 기대 이익은 <표>와 같다. 갑과 을이 서로 협력하여 사슴을 잡았을 경우

		갑	
		C	D
을	C	(4, 4)	(1, 0)
	D	(0, 1)	(1, 1)

는 (4, 4), 갑과 을이 서로 배반하여 토끼를 잡았을 경우는 (1, 1), 갑이 사슴을 기다렸으나 을이 토끼를 쫓아가 버린 경우는 (0, 1), 갑이 토끼를 쫓아가 버리고 을이 사슴을 기다린 경우는 (1, 0)이다. 물론 이 경우는 사냥의 성공 확률을 100%, 즉 1로 가정한 것이다. 사냥 성공 확률이 1보다 작다면 기대 이익은 성공 확률에 비례하여 작아진다.

먼저 을이 협력할 경우 갑의 선택을 생각해 보자. 이 경우 갑이 협력하면 4를 얻는다. 반면 갑이 배반하면 갑은 1을 얻는다. 따라서 을이 협력할 경우 갑도 협력하게 된다. 다음으로 을이 배반할 경우 갑의 선택을 생각해 보자. 이 경우 갑이 협력하면 0을 얻는다. 반면 갑이 배반하면 1을 얻는다. 따라서 을이 배반할 경우 갑도 배반하게 된다. 이와 같이 상대방과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이 균형인 경우의 게임을 ‘조정 게임’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둘 중 어떤 균형으로 귀결될지는 알 수 없다. 물론 (4, 4)가 (1, 1)보다 훨씬 이득이지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사슴을 기다릴 경우 얻을 이득은 4 또는 0이다. 상대방도 사슴을 기다린다면 4를 얻지만 만약 상대방이 토끼를 쫓아가 버리면 1도 얻지 못한다. 반면 토끼를 쫓아갈 경우의 이득이 1이다. ㉠이렇게 보면 토끼를 쫓아가는 것이 더 안전한 선택이 될 수 있지만 보통 이와 같은 상황에서 행위자는 상대방과 같은 선택을 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행위자가 상대방과 협력하고자 하는 이유는 기대 이익 때문이다. 사슴 사냥의 상황에서 기대 이익은 행위자를 기준으로 하여 매겨지는데, 행위자에게 가장 이득이 되는 선택은 상대방이 협력할 때 나도 협력하는 것이다. 남이 어떤 것을 선택한다고 해서 내 몫이 줄어들지 않으며, 남과 내가 같은 것을 선택할수록 나눠 갖는 몫이 커진다. 경제학에서는 서로 협력을 하면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이러한 상황을 가리켜 사슴 사냥 게임이라고 부른다. 어떠한 재화가 비경합성이 존재하는 경우라면 사슴 사냥 게임이 성립할 수 있는데, 사슴 사냥 게임은 어느 한쪽이 손해를 보면 다른 쪽이 이

득을 보게 되는, 행위자의 최적의 선택이 다른 쪽 행위자의 선택에 의존하고 있는 치킨 게임과 구별된다. 사슴 사냥 게임을 보장 게임, 확신 게임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사실 루소는 경제와 관련하여 사슴 사냥의 상황을 제시한 것은 아니었다. 정치학자인 루소는 정치 질서에 대한 그의 견해를 피력하는 과정에서 사슴 사냥의 상황을 언급한 것이었다. 루소는 정당한 국내의 정치 질서가 반드시 국제적인 평화 질서를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야기하면서, 한 국가 내에서 개인은 사회 계약을 통해 존재하게 되지만 각 국가 간의 관계에서 국민들은 전쟁 상태라고도 부를 수 있는 자연 상태에 존재하게 된다고 말하였다. 루소는 이를 ‘혼합 상태’라고 칭하는데, 이 혼합 상태가 인류에게 가장 큰 해악인 독재와 전쟁을 발생하게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에 따르면, 국가는 이성보다는 ‘자기 편애’라는 강한 열정에 따라 행동한다. 국가는 안전을 위해 인접 국가와의 협력을 필요로 하지만 인접 국가의 협력이 보장되기 전까지 무한한 권력을 추구한다. 결국 개별 국가는 죄수의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죄수의 딜레마란 두 사람의 협력적인 선택이 둘 모두에게 최선의 선택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익만을 고려한 선택으로 인해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나쁜 결과를 야기하는 현상을 말한다.

루소는 개별 국가가 죄수의 딜레마 상황에 봉착하고 있는 한, 평화를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장 게임, 즉 사슴 사냥 게임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전환을 위해서는 행위자가 스스로 협력에 대한 확신을 가지거나, 보장을 강제할 수 있는 존재가 등장해야 한다. 하지만 루소는 사회 계약을 통해 만들어진 인위적 정치체인 국가에게서 합의된 의지가 도출되기는 어렵다고 본다. 결국 보장자가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루소는 이 보장자가 국가 연합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물론 국가 연합이 지닌 힘은 그 연합을 구성하는 어떤 개별 국가가 지닌 힘보다 월등하게 커야 하고, 각 개별 국가는 영토의 크기, 인구, 세력 등에 상관없이 1국 1표라는 평등한 권리가 보장된 가운데, 공통의 국제법을 따라야 한다. 이러한 루소의 견해는 국가 연합의 결정 사항을 개별 국가가 따라야 한다는 점에서 개별 국가의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였지만 상생과 협력의 정치를 강조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4.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루소의 이론이 출현하게 된 시대적 배경에 대해 설명하고 루소의 이론이 적용된 다양한 사례를 설명하고 있다.
- ② 루소의 이론에 대한 서로 다른 평가를 제시하고 상반된 평가가 도출되는 까닭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 ③ 루소의 이론에서 제시된 개념에 대해 설명하고 이를 통해 국제 정치에서 요구되는 자세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 ④ 현대의 국제 정치가 당면한 문제의 실태를 보여 주고 이와 관련하여 루소의 이론이 시사하는 바를 설명하고 있다.
- ⑤ 구체적 사례를 통해 루소의 이론의 의의를 제시하고 루소의 이론이 계승되고 발전되어 온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5. 밑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사슴 사냥 게임에서 기대 이익은 행위자를 기준으로 하여 매긴다.
- ② 치킨 게임에서 행위자의 최적의 선택은 다른 쪽 행위자의 선택과 관련된다.
- ③ 인접 국가와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국가는 열정보다는 이성애에 따라 행동한다.
- ④ 국가 연합은 여러 국가가 협력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주체로서 기능할 수 있다.
- ⑤ 비경합적 성격을 가지는 재화를 획득할 때는 사슴 사냥 게임이 성립할 수 있다.

6. ㉠의 이유를 추론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행위자는 행위의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하기 때문에
- ② 행위자는 자신의 이득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 ③ 행위자는 공동체의 협력 관계를 지키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 ④ 행위자는 이득을 얻는 것보다 손해를 보지 않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 ⑤ 행위자는 '죄수의 딜레마'가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7. 밑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사장 한 명과 직원 두 명이 있는 직장이 있다. 어느 날 두 명의 직원은 휴가 보장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두 명의 직원 중 한 명이 파업에서 빠지면 휴가 보장의 요구는 묵살되고 이를 주장한 직원은 불이익을 받는다.

- ① 직원 두 명 모두가 파업에 참여할 경우 직원이 얻는 기대 이익이 가장 크다.
- ② 직원 두 명이 모두 기대 이익을 위한 위험을 감수하고자 한다면 협력이 이루어질 것이다.
- ③ 직원 두 명 모두가 파업에 참여하는 경우나 직원 두 명 모두가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조정 게임에 해당한다.
- ④ 파업의 성공 확률이 80%라면 파업에 참여하는 경우의 기대 이익보다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의 기대 이익이 더 크다.
- ⑤ 직원 중 한 명은 파업에 참여하고 다른 한 명은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도 최대의 기대 이익을 달성하지 못하게 된다.

8. 밑글의 루소의 견해에 따라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A국과 B국은 국내적으로는 안정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이지만 양국이 오래도록 적대적 관계에 놓여 있어 전쟁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 그러다 A국이 B국에게 평화 협정 조약 체결을 제안하였고 B국은 A국의 제안이 신뢰할 만한 것인지에 대해 판단하고 있다. B국은 A국과의 적대적 관계로 인한 양국의 손실이 매우 크다고 보고 협정 체결 동의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 ① A국과 B국의 국내적 안정이 유지되는 것은 국가와 개인 사이에 사회적 계약이 원활히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겠군.
- ② A국이 평화 협정 조약 체결을 통해 B국과의 협력을 제안하는 것은 A국이 자국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겠군.
- ③ A국과 B국의 평화 협정 조약 체결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A국과 B국이 조약 체결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하겠군.
- ④ A국과 B국이 적대적 관계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A국의 국민과 B국의 국민은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는 자연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군.
- ⑤ A국과 B국의 평화 협정 조약 체결이 A국과 B국에 손실을 가져오지 않는다면 A국과 B국이 국내외적으로 합의된 평화 협력에 대한 의지를 도출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군.

9. 문맥적으로 ㉠와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하루 종일 찾던 물건이 뒷주머니에서 나왔다.
- ② 어제 신문에 우리 학교에 대한 기사가 나왔다.
- ③ 그 사람은 다음 주부터 회사에 나오기로 했다.
- ④ 한바탕 비가 내리자 나뭇가지에서 새잎이 나왔다.
- ⑤ 충분한 분석을 통해 나온 비판인지 판단해야 한다.

17. 윗글의 ㉠~㉣과 같은 의미로 사용된 것은?

- ① ㉠:웃음은 또 다른 웃음을 부르는 법이다.
- ② ㉡:그는 익숙한 솜씨로 기계를 다루고 있었다.
- ③ ㉢:이야기가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 ④ ㉣:그는 상식에 어긋나는 일을 한 적이 없다.
- ⑤ ㉤:하늘을 보니 당장이라도 비가 오게 생겼다.

[18~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A] 산어느 날 당신과 내가
날과 씨로 만나서
하나의 꿈을 엮을 수만 있다면
우리들의 꿈이 만나
한 폭의 비단이 된다면

[B] 나는 기다리리, 추운 길목에서
오랜 침묵과 ㉠외로움 끝에
한 슬픔이 다른 슬픔에게 손을 주고
한 그리움이 다른 그리움의
그윽한 눈을 들여다볼 때
어느 겨울인들
우리들의 사랑을 촉개 하리

[C] 외롭고 긴 기다림 끝에
어느 날 당신과 내가 만나
하나의 꿈을 엮을 수만 있다면
- 정희성, 「한 그리움이 다른 그리움에게」 -

(나)

내 골방의 커튼을 걷고
정성된 마음으로 황혼을 맞아들이노니
바다의 흰 갈매기들같이도
인간은 얼마나 ㉡외로운 것이냐.

황혼아, 네 부드러운 손을 힘껏 내밀라.
내 뜨거운 입술을 맘대로 맞추어 보련다.
그리고 네 품 안에 안긴 모든 것에게
나의 입술을 보내게 해 다오.

저 십이 성좌의 반짝이는 별들에게도,
종소리 저문 삼림 속 그윽한 수녀들에게도,
시멘트 장판 위 그 많은 수인(囚人)들에게도,
의지가 지없는 그들의 심장이 얼마나 떨고 있는가.

고비사막을 걸어가는 낙타 탄 행상대에게나,
아프리카 녹음 속 활 쏘는 토인들에게라도
황혼아, 네 부드러운 품 안에 안기는 동안이라도
지구의 반쪽만을 나의 타는 입술에 맡겨 다오.

내 오월의 골방이 아늑도 하니
황혼아, 내일도 또 저 푸른 커튼을 견게 하겠지.
암암(暗暗)히 사라지는 시냇물 소리 같아서
한 번 식어지면 다시는 돌아올 줄 모르나 보다.
- 이육사, 「황혼」 -

(다)

가시리 가시리잇고 나는
브리고 가시리잇고 나는

위 증즐가 대평성대(大平盛代)

날러는 엇디 살라 호고
브리고 가시리잇고 나는

위 증즐가 대평성대(大平盛代)

잡스와 두어리마는
선하면 아니 올세라

위 증즐가 대평성대(大平盛代)

설은 님 보내옵나니 나는
가시는 듯 도셔 오쇼셔 나는

위 증즐가 대평성대(大平盛代)
- 작자 미상, 「가시리」 -

18.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현재의 상황에 대한 화자의 대응 방식이 드러나 있다.
 - ② 색채어를 대조하여 이미지를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 ③ 영탄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고조된 감정을 나타내고 있다.
 - ④ 의인화된 대상을 부르며 화자와의 친밀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⑤ 화자가 처한 부정적 현실을 수용하려는 태도가 드러나 있다.

19. (가)의 구조를 [A]~[C]로 나타냈을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골라 바르게 묶은 것은?

<보 기>

- ㄱ. [A]와 [C]에서 가정한 상황은 [B]에서 '나'의 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된다.
- ㄴ. [A]에서 [B]로 연결되면서 '나'는 적극적인 자세로 태도가 변화한다.
- ㄷ. [B]의 상황은 [C]를 실현하기 위해 '나'가 의도적으로 선택한 것이다.
- ㄹ. [C]는 [A]와 대응되어 [A]의 정서를 강조하면서 시상을 마무리한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20.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은 대상과의 거리감을 유발한다.
- ② ㉡은 화자의 내면적인 방황과 관련된다.
- ③ ㉠과 ㉡은 모두 이상과 현실의 괴리에서 드러난다.
- ④ ㉠과 ㉡은 모두 외부와의 단절에서 생성된 정서이다.
- ⑤ ㉠은 개인적 상황에서, ㉡은 인간에 대한 보편적 인식에서 비롯된다.

21. <보기>를 바탕으로 (나)에 대해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이 시에서 '황혼'은 종래의 '죽음'이나 '이별'이라는 관습적 상징이 아니라, 고독한 존재의 이상을 구현하는 상징이다. 황혼은 밝음과 어둠이 교차하는 시간 즉, 아침의 여명처럼 시작과 끝이 융합하는 시간이므로, 우주와 대지를 하나로 연결하는 이미지를 갖게 된다.

- ① '별', '수녀', '수인', '행상대', '토인'은 의지할 데 없는 고독한 존재들을 뜻하는군.
- ② '골방'이 폐쇄된 공간에서 우주와 대지를 하나로 연결하는 열린 공간이 되는 것은 '황혼' 때문이군.
- ③ 화자가 '뜨거운 입술'로 '황혼'의 손에 입 맞추려는 의도는 '황혼'과 하나 되어 아침의 여명을 기다리기 위함이군.
- ④ 화자가 '정성된 마음'으로 '황혼'을 맞아들이는 이유는 '황혼'을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긍정적 의미로 받아들였기 때문이군.
- ⑤ 화자가 '황혼'의 '부드러운 품 안'에 안겨 세상을 포용하려는 것은 황혼에 대한 관습적 상징에서 벗어난 의미로 해석할 수 있군.

22. (가)의 화자가 (다)의 화자에게 해줄 수 있는 말로 적절한 것은?

- ① 임과 함께 했던 추억을 떠올리며 현재의 아픔을 잊어야 합니다.
- ② 현실이 비록 힘들더라도 임과의 만남을 위해 참고 견뎌야 합니다.
- ③ 이별의 아픔이 있어야 당신은 지금보다 더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 ④ 이별의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도 임을 향한 또 다른 사랑의 표현입니다.
- ⑤ 당신의 슬픔과 임의 슬픔이 함께할 때 당신의 사랑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23. (다)의 시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브리고'의 주체는 임으로, 화자가 애원하는 이유가 된다.
- ② '엇디 살라 흐고'의 주체는 임을 떠나보내며 한탄하는 화자이다.
- ③ '잡스와 두어리마는'의 주체는 임으로, 임이 떠나는 원인이 된다.
- ④ '보내옵나니'의 주체는 화자로, 임이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하는 행위이다.
- ⑤ '도셔 오쇼셔'는 임이 행위의 주체로, 화자의 소망이 담겨 있다.

[24~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아들은

그러나, 돌아와, 채 어머니가 뭐라고 말할 수 있기 전에, 입때 안 주무셨어요, 어서 주무세요, 그리고 자리웁으로 갈아입고는 책상 앞에 앉아, 원고지를 펴 놓는다.

그런 때 옆에서 무슨 말이든 하면, 아들은 언제든 불쾌한 표정을 지었다. 그것은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그래, 어머니는 가까스로, 늦었으니 어서 자거라, 그걸랑 널 쓰

[A] 구..... 한마디를 하고서 아들의 방을 나온다.

“애기는 널 아침에래두 허지.”

그러나 열한 점이나 오정에야 일어나는 아들은, 그대로 소리 없이 밥을 떠먹고는 나가 버렸다.

때로, 글을 팔아 몇 푼의 돈을 구할 수 있을 때, 그 어느 한 경우에, 아들은 어머니를 보고, 뭐 잡수시구 싶으신 거 없어요, 그렇게 묻는 일이 있었다.

어머니는 직업을 가지지 못한 아들이, 그래도 어떻게 몇 푼의 돈을 만들어, 자기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을 신기하게 기뻐하였다.

“어서 내 생각 말구, 네 양말이나 사 신어라.”

그러면, 아들은 으레, 제 고집을 세웠다. 아들의 고집 센 것을, 물론 어머니는 좋게 생각 안 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라면, 아들이 고집을 세우면 세울수록 어머니는 만족하였다. 어머니의 사랑은 보수를 원하지 않지만, 그래도 자식이 자기에게 대한 사랑을 보여 줄 때, 그것은 어머니를 기쁘게 해 준다.

대체 무얼 사 줄 테냐, 무어든 어머니 마음대로. 먹는 게 아니래도 좋으냐. 네. 그래 어머니는 에누리 없이 욕망을 말해 본다.

“너, 나, 치마 하나 해 주려무나.”

아들이 혼연히 응낙하는 걸 보고,

“네 아주머니는 뭐 안 해 주니?”

아들은 치마 두 감의 가격을 묻고, 그리고 갑자기 엄숙한 얼굴을 한다. 혹은 밤을 새우기까지 해 아들이 번 돈은, 결코 대단한 액수의 것이 아니었다. 그래, 어머니는 말한다.

“그럼 네 아주머니나 해 주렴.”

아들은, ㉠아니에요, 넉넉해요. 갖다 끊으세요. 그리고 돈을 내놓았다.

㉡어머니는, 얼마를 주저한다. 그러나, 마침내, 그는 가장 자랑스러이 돈을 집어 들고, 애애 옷감 바꾸러 나가자, 아재비가 치마 허라고 돈을 주었다. 네 아재비가…… 그렇게 건넌방에서 재봉틀을 놀리고 있던 맘머느리를 신기하게 놀래어 준다.

치마가 되면, 어머니는 그것을 입고, 나들이를 하였다.

일갓집 대청에 가 주인 아낙네와 마주 앉아, 갓난애같이 어머니는 치마 자랑할 기회를 엿본다. 주인마누라가, 선불리, 참, 치마 좋은 거 해 입으셨구먼, 이라고나 한다면, 어머니는 서슴지 않고,

“이거 내 둘째 아이가 해 준 거죠. 제 아주머니 해하구, 이거하구……”

이렇게 묻지도 않은 말을 하였다. 어머니는 그것이 아들의 훌륭한 자랑거리라 생각하였다.

자식을 자랑할 때, 어머니는 얼마든지 뻔뻔스러울 수 있다.

그러나 그런 일은 늘 있을 수 없다. 어머니는 역시 글을 쓰는 것보다는 월급쟁이가 몇 곱절 낫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렇게 재주 있는 내 아들은 무엇을 하든 잘하리라고 혼자 작정해 버린다. 아들은 지금 세상에서 월급자리 얻기가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말한다. 하지만, 보통학교만 졸업하고도, 고등학교만 나오고도, 회사에서 관청에서 일들만 잘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어머니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도, 또 ㉢동경엘 건너가 공부 하고 온 내 아들이, 구해도 일자리가 없다는 것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다.

구보는

집을 나와 천변 길을 광고로 향해 걸어가며, 어머니에게 단 한마디 “네—” 하고 대답 못했던 것을 뉘우쳐 본다. 하기가 중문을 여닫으며 구보는 “네—” 소리를 목구멍까지

[B] 내어 보았던 것이나 중문과 안방과의 거리는 제법 큰 소리를 요구하였고, 그리고 공교롭게 활짝 열린 대문 앞을, 때 마침 세 명의 여학생이 웃고 떠들며 지나갔다.

그렇더라도 대답은 역시 해야만 하였었다고, 구보는 어머니의 외로워할 때의 표정을 눈앞에 그려 본다. 처녀들은 어느 틈엔가 그의 시야에서 사라졌다.

구보는 마침내 다리 모퉁이에까지 이르렀다. ㉣그의 일 있는 듯싶게 꾸미는 걸음걸이는 그곳에서 멈추어진다. 그는 어딜 갈까, 생각해 본다. 모두가 그의 갈 곳이었다. 한 군데라 그가 갈 곳은 없었다.

(중략)

한길 위에 사람들은 바쁘게 또 일 있게 오고 갔다. 구보는 포도 위에 서서, 문득, 자기도 **창작을 위해** 어디, 예(例)하면 **서소문정 방면**이라도 답사할까 생각한다. ‘모테로노로지오*’를 게을리하기 이미 오래다.

그러나, 그러한 생각과 함께 구보는 **격렬한 두통**을 느끼며, 이제 한 걸음도 더 옮길 수 없을 것 같은 **피로**를 전신에 깨닫는다. 구보는 **얼마 동안**을 망연히 그곳, 한길 위에 서 있었다……

얼마 있다,

구보는 다시 걸기로 한다. 여름 한낮의 띄약별이 맨머릿바람의 그에게 현기증을 주었다. 그는 그곳에 더 그렇게 서 있을 수 없다. 신경 쇠약. 그러나 물론, 쇠약한 것은 그의 신경뿐이 아니다. **이 머리를 가져, 이 몸을 가져, 대체 얼마만 한 일을 나는 하겠단 말인고—**. 때마침 옆을 지나가는 장년의, 그 정력가형 육체와 탄력 있는 걸음걸이에 구보는, 일종 위압조차 느끼며, 문득, 아홉 살 때에 집안 어른의 눈을 기어 「춘향전」을 읽었던 것을 뉘우친다. 어머니를 따라 일갓집에 갔다 와서, 구보는 저도 얘기책이 보고 싶다 생각하였다. 그러나 집안에서는 그것을 금했다. 구보는 남몰래 안잠자기에게 문의하였다. 안잠자기는 세책집에는 어떤 책이든 있다는 것과, 일 전이면 능히 한 권을 세내 올 수 있음을 말하고, 그러나 꾸중 들우. 그리고 다음에, 재밌긴 「춘향전」이 제일이지, 그렇게 그는 혼잣말을 하였었다. 한 분(分)의 동전과 한 개의 주발 뚜껑, 그것들이, 십칠년 전의 그것들이, 뒤에 온, 그리고 또 올, 온갖 것의 근원이었을지도 모른다. 자기 전에 읽던 얘기책들. **밤을 새워 읽던 소설책들**. 구보의 건강은 그의 **소년 시대에 결정적으로 손상되었던 것**임에 틀림없다…….

- 박태원,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 -

*모테로노로지오 : 고현학(考現學). 현대의 경향, 풍속, 세태, 유행을 탐구하는 학문이나 그 태도를 말함.

24.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구보는 어머니에게 말할 기회를 빼앗은 세 여학생에게 항의했다.
- ② 어머니는 일갓집 주인 아낙네에게 아들의 직업을 조심스럽게 자랑하였다.
- ③ 안잠자기는 어린 시절의 구보에게 얘기책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었다.
- ④ 구보는 어머니에게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월급쟁이가 될 수 있다고 말하였다.
- ⑤ 맘머느리는 구보의 돈으로 자신의 치마를 해 주겠다는 어머니의 제안을 정중히 거절하였다.

25.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는 어머니가 서술자가 되어 자신의 행동과 심리를 제시하고 있다.
- ② [B]는 구보가 관찰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전달함으로써 객관성을 높이고 있다.
- ③ [A]와 달리 [B]는 이야기 외부의 서술자가 전지적 시점을 통해 갈등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
- ④ [B]와 달리 [A]는 서술자의 시각을 통해 상황의 변화에 대한 서술자의 인식을 전달하고 있다.
- ⑤ [A]는 어머니의 입장에서, [B]는 구보의 입장에서 바라본 사건을 이야기 외부의 서술자가 전달하고 있다.

제 1 교시

국어 영역(화법과 작문)

홀수형

[35~37] 다음은 학생이 수업 시간에 한 발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발표를 맡은 ○○○입니다. 저는 전통극과 관련된 문화유산 중 ‘예산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예산대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산대’를 알아야 하는데요, 산대는 산 모양의 큰 무대입니다. 산대는 대개 고정되어 있었지만 광해군일기에 사람들이 산대를 끌어냈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동이 가능한 산대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예산대인데, 이 명칭은 성종실록에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산대의 구체적인 모습은 조선 영조 때 중국 사신단의 일정을 담은 봉사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준비한 자료를 보겠습니다. (㉠자료 제시) 기이한 돌산처럼 보이는 물체를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죠? 이것이 바로 전통 인형극을 위한 예산대의 전체 모습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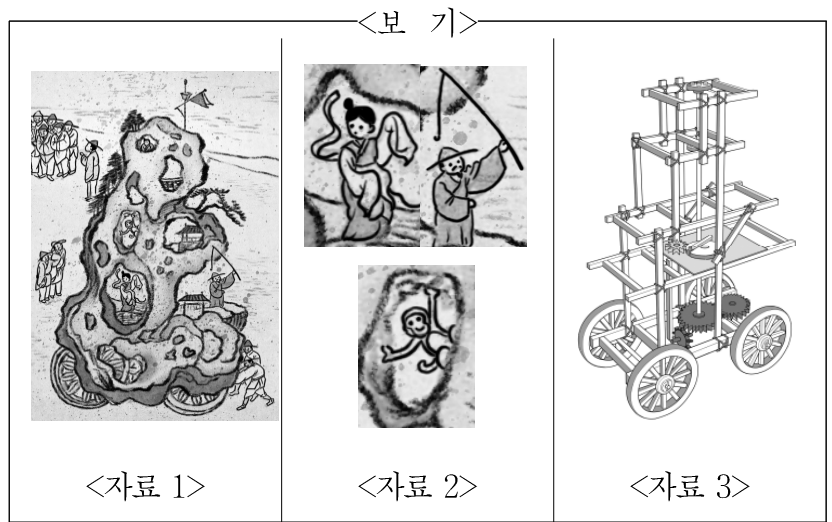
우선, 예산대에 있는 인형들을 알아보까요? 수레바퀴 바로 위에는 선녀 인형과 뉘시꾼 인형이, 그 위에는 원숭이 인형 등이 있습니다. 그림이 작아 잘 안 보일 테니 이 인형들만 확대해서 보여 드릴게요. (㉡자료 제시) 지금 보는 선녀 인형은 양 팔을 흔들며 춤을 추었습니다. 뉘시꾼 인형은 뉘시대를 앞뒤로 움직이는 모습을 연출했다고 해요. 그리고 원숭이 인형은 돌아가면서 주변 구멍에 얼굴을 내밀어 관객들에게 웃음을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산대 위의 인형들은 어떻게 움직일 수 있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예산대 아랫부분에 힌트가 있습니다. (㉢자료 제시) 여기 보이는 수레바퀴가 그 역할을 했는데요, 이 그림은 최근 예산대를 복원하는 과정에서 내부 구조를 재현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산대를 이동하면, 예산대 내부의 톱니바퀴가 수레바퀴로부터 동력을 전달받아 회전하면서 인형들을 움직였습니다.

이처럼 예산대는 이동 시에 인형들을 자동으로 움직여 극에 활력을 불어넣었다는 점에서 우리 조상들의 지혜를 보여 줍니다. 여러분, 예산대에 대해 관심이 좀 생겼나요? (청중의 대답을 듣고) 여러분도 기술과 예술을 접목한 전통문화의 또 다른 예를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35. 위 발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청중에게 질문을 하여 발표 내용에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 ② 정보의 출처를 언급하여 발표 내용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 ③ 청중과 공유했던 경험을 제시하며 발표의 목적을 밝히고 있다.
 - ④ 발표 주제와 관련된 단어의 의미를 설명하여 청중의 이해를 돕고 있다.
 - ⑤ 발표에 대한 청중의 반응을 확인하며 청중에게 바라는 바를 제시하고 있다.

36. <보기>는 위 발표에서 발표자가 제시한 자료이다. 발표자의 자료 활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예산대의 제작 과정을 보여 주기 위해 ㉠에 <자료1>을 활용하였다.
- ② 예산대의 구조를 설명하기 위해 ㉠에 <자료3>을 활용하였다.
- ③ 예산대의 유래를 설명하기 위해 ㉡에 <자료2>를 활용하였다.
- ④ 예산대 인형의 형태를 보여 주기 위해 ㉡에 <자료2>를 활용하였다.
- ⑤ 예산대 인형이 움직이는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 ㉢에 <자료 3>을 활용하였다.

37. 다음은 발표 후 청중의 질문에 대한 발표자의 답변이다. 발표 내용과 답변을 바탕으로 할 때, 청중의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신선의 세계에서 유희를 즐기는 인물과 동물을 나타낸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꿈꾸던 이상향 속의 존재들이지요.”

- ① 예산대에는 여러 인형들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인형들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나요?
- ② 전통극 무대에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하셨는데, 예산대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가요?
- ③ 예산대는 산 모양의 큰 무대라고하셨는데, 그 산은 신선의 세계와 어떤 관련이 있나요?
- ④ 예산대에서 인형극이 행해졌다고 하셨는데, 사람이 직접 예산대 위에서 공연할 수 있었나요?
- ⑤ 봉사도는 중국 사신단의 일정을 보여 준다고 하셨는데, 예산대 외에 다른 그림에는 무엇이 있었나요?

[38~42] (가)는 학생들의 대화이고, (나)와 (다)는 대화에 참여 학생들이 작성한 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학생 1: ㉠이번 우리 과제가 '우리 일상의 문제에 대한 글쓰기'인데 방향 좀 생각해 봤니?

학생 2: 우리 주변 현실의 문제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중이야. 넌?

학생 1: 그럼 우리 시에서 설치한 자전거 보관대 문제에 대해 쓰자. 그 문제에 대해 공감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지금 주제로 결정해서 바로 써 보자. [A]

학생 2: 음... 네가 그렇게 바로 결정해 말하니까 좀 당황스럽네.

학생 1: 네 생각을 무시하려던 것은 아니었는데 의욕이 넘쳤나 봐. 미안하다. 친구야. 정중하게 물어볼게. 우리가 자전거 보관대의 문제에 대해 다뤄 보면 어떨까?

학생 2: 그래. ㉡마침 나도 자전거 보관대 이용이 불편해서 이에 대해 생각해 보고 있었어. 한번 열심히 해 보자. 그런데 너는 우리 시의 자전거 보관대의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해?

학생 1: 우리 시에서 자전거 보관대를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아서 안 쓰는 자전거도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 며칠 전 신문 기사를 보니 ◇◇시의 경우 시에서 다양한 조치를 내려 시민들이 쾌적하게 이용하고 있다고 했어. 그래서 자전거 보관대를 잘 정비해 달라고 시청에 건의를 올렸는데 노력했다는 답변만 받았어.

학생 2: ㉢시청에서는 어떤 노력을 했다고 하는데?

학생 1: 관리 인원을 증원하고 자전거 수거 안내문도 붙였다는 거야. 그렇지만 조금 더 노력했으면 좋겠어.

학생 2: ㉣그런데 너는 시청에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거지?

학생 1: 맞아. 시에서 특별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아.

학생 2: ㉤시의 특별 대책도 중요한데 나는 이용자의 의식이 더 문제라고 생각해. 이용자들이 자전거를 방치하지만 않으면 애초에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테니까.

학생 1: 자전거를 방치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거나 적극 홍보하는 게 먼저 아닐까? 시에서 노력하면 이용자들이 더욱 경각심을 갖고 주의를 기울일 거야.

학생 2: 나는 시청의 조치는 한계가 있고 결국 이용자들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해. 너는 관점이 좀 다르니 해결 방안을 구상해서 각자 글을 써 보자.

학생 1: 좋아. 나는 시청 누리집 게시판에 글을 다시 올릴 생각이야.

학생 2: 그래. 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학교 신문에 실고 싶어. / 학생 1: 좋아. 그렇게 해 보자.

(나) '학생 1'의 글

시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 고등학교 ○○○입니다. 우리 학교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역 주변 자전거 보관대

관리에 대해 건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첨부한 사진을 보아 주십시오. 사진에서처럼 자전거 보관대의 자전거 상당수가 크게 파손되거나 녹이 슨 상태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철삿줄로 묶여 있거나 자물쇠가 채워져 있어서 이동시키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반면에 링크의 신문 기사(http://www.****.co.kr/erwe)에서 알 수 있듯이, 인근 ◇◇시에서도 유사한 문제를 겪었지만 시에서 강제 폐기나 각종 제도 활동 등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조치하여 눈에 띄는 성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시장님. 폐자전거는 폐기하거나 보관대 주변에 시시 티브이(CCTV)를 설치해 자전거를 방치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행정 명령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자전거 보관대의 올바른 이용에 대한 캠페인도 적극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 더 애써 주신다면 보관대도 쾌적하게 이용하고 도시의 미관도 개선될 것입니다.

건의 드린 내용에 대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파일 ○○역 주변 자전거 보관대.jpg [미리 보기]

(다) '학생 2'의 글

○○역 주변 자전거 보관대에 이용자들이 녹슬거나 망가진 자전거를 아무 문제의식 없이 그대로 방치하고 있어서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자전거 보관대가 제 기능도 하지 못할뿐더러 우리 시의 흉물로 전락하고 있다.

우리가 ○○역 주변 자전거 보관대를 올바르게 이용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 첫째, 우리 학교 주변 미관과 환경 개선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역 자전거 보관대에 자전거를 방치하는 일만 없어도 우리 노력으로 학교 이미지 개선을 도모할 수 있다. 둘째, 자전거 보관대를 잘 이용할 수 있다면 자전거 등고가 늘어나 학교 앞 교통 체증도 줄일 수 있다. 자전거 보관이 용이해지면 자가용 등고도 줄어 학교 앞 차량 운행도 줄어들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자전거 보관대를 올바르게 이용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첫째, 자전거 보관대에 자전거를 방치하면 안 된다. 녹슬거나 망가졌다고 해서 내 자전거를 회수해 가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없게 된다. 둘째, ㉠자전거 보관대를 이용할 때는 목적을 분명히 하는 것이 좋다. 자전거를 보관대에 두었다가 다른 불일로 인해 계속 가져가지 않으면 결국 자전거를 방치하는 결과가 된다.

자전거 보관대의 올바른 이용은 막대한 노력이 필요한 일은 아니다. 자전거 보관대를 조금만 신경 써서 이용한다면 개인뿐만 아니라 학교, 사회의 공익을 도모하는 일이 될 것이다.

제 1 교시

국어 영역(언어와 매체)

홀수형

[35~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A] 우리말을 로마자로 표기하는 방식을 설명한 로마자 표기법에 따르면 ‘ㄱ, ㄷ, ㅂ’은 모음 앞에서는 ‘g, d, b’로, 자음 앞에서나 어말에서는 ‘k, t, p’로 구분하여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하나의 음운을 하나의 로마자로 표기하는 것이 편리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규정한 이유는 파열음이 초성에 놓일 때와 어말에 놓일 때의 발음 방법이 상당히 다르기 때문이다. 또 조음 방법상 ‘ㄱ, ㄷ, ㅂ’은 모두 무성 파열음이지만, 유성음 사이에서는 유성음화된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를 구분하지 않지만 외국인들은 무성음 ‘k, t, p’와 유성음 ‘g, d, b’를 구분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을 위한 로마자 표기에는 이를 반영하여 유성음으로 표기를 한다. 그런데 어두에서의 ‘ㄱ, ㄷ, ㅂ’은 무성음임에도 ‘g, d, b’로 표기를 하는데, 그 이유는 ‘k, t, p’로 표기했을 때에는 거센소리 ‘ㄱ, ㄷ, ㅂ’과 구분이 안 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밭’과 ‘팔’을 모두 ‘pal’로 표기한다면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배울 때 혼란을 겪을 수 있다.

그런데 현대 국어에서 파열음은 유성음과 무성음이 구분되지 않지만, 중세 국어에서는 ‘ㄹ’과 같이 유성 파열음을 표기하는 자음이 존재하였다. ‘ㄹ’은 ‘ㄴ’과 대립되는 유성음이었다. 『훈민정음해례』에 따르면 ‘ㅇ’을 순음(唇音) 아래에 연서(連書)하면 순경음이 되는데, 순경음은 가벼운 소리로 발음될 때 입술이 겨우 붙을락 말락 해서 후음(喉音)의 소리가 많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훈민정음 창제 당시에는 ‘ㄹ’이 유성음 사이에서만 쓰였고, 어두에는 쓰이지 않았다. 15세기 중반부터 ‘ㄹ’의 소리가 [w]로 바뀌면서 ‘ㄴ/ㄷ’가 이 글자를 대신하며 소실되었다.

‘ㄹ’은 ‘ㄴ’에 대립되는 유성음으로, 『훈민정음』과 『동국정운』에서 초성의 하나로 제시되었다. 또한 ‘날나치’를 보면 ‘ㄹ’은 중성에서도 유성음으로 실현되었다고 추정된다. 그러나 유성음 사이에서만 쓰였으며 어두나 독립된 단어의 종성으로 쓰이지는 않았다.

이 외에도 유성음 ‘ㅇ’도 있었다. 『훈민정음언해』중 ‘나랏 말 쓰미 둥궤(中國)에 달아’의 예를 보면 ‘달아’가 연철이 아닌 분철로 표기되어 있다. 비슷한 시기의 예 중 ‘하이’의 경우도 ‘아시’로 연철하지 않고 있다. 이는 ‘ㅇ’이 유성음으로서 음가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 주는 증거로 볼 수 있다.

35. 윗글을 바탕으로 추론한 내용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ㄹ, ㄷ’ 모두 유성음 사이에서만 쓰였다고 할 수 있겠군.
 - ② ‘바보’에 사용된 ‘ㅂ’은 외국인들에게 각각 다른 소리로 인식되었군.
 - ③ ‘ㄹ’의 소실은 ‘ㅈ-ㅊ-어’가 ‘주위’와 같이 활용된 것과 관련이 있겠군.
 - ④ ‘날’과 같이 음절 하나로 된 단어에서는 ‘ㄹ’이 받침으로 실현되었군.
 - ⑤ 15세기에 ‘겨레’를 ‘결’로 표기하였다는 것은 ‘ㅇ’이 음가가 있었다는 증거이겠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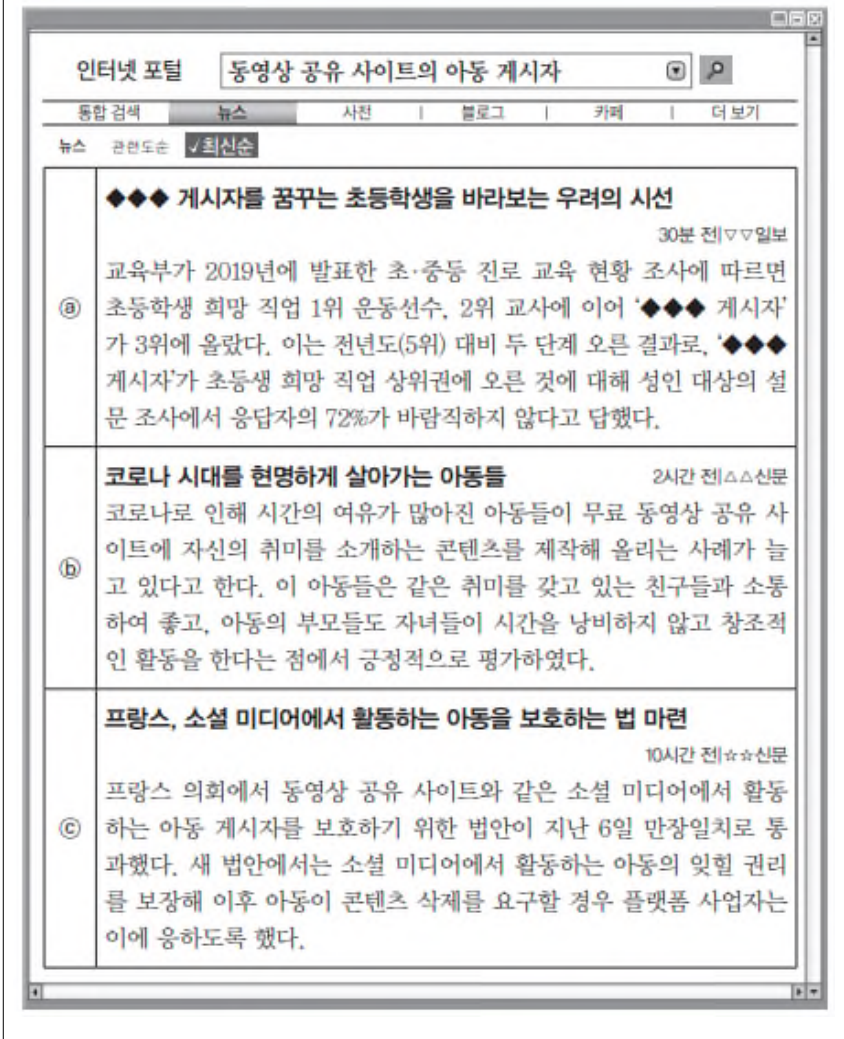
36. [A]와 <보기>를 참고하여 로마자 표기법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한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은 외국인들에 의해 먼저 창안되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매켄-라이샤워 표기법과 예일 표기법이 있다. 매켄-라이샤워 표기법은 파열음을 표기할 때 로마자 옆에 ‘ㄹ’ 기호로 사용하여 거센소리를 표기했다. 그래서 ‘밭’은 ‘pal’, ‘팔’은 ‘p'al’과 같이 표기를 했다. 또 같은 자음이라도 초성에 올 때와 종성에 올 때 다르게 표기를 했으며, 자음 동화와 같은 음운 현상을 표기에 반영했다. 반면 예일 표기법에서는 로마자만으로 표기를 하였으며, 음운 현상을 반영하지 않고 같은 자음은 항상 같은 로마자로 표기를 하였다. 그래서 ‘ㅅ’이 초성에 있을 때나 종성에 있을 때나 모두 ‘s’로 표기를 하였다. 현재의 로마자 표기법은 특수 기호를 사용하지 않는 점은 예일 표기법을 수용한 것이지만, 종성 표기법이나 음운 현상을 반영한 점은 매켄-라이샤워 표기법을 수용한 것이다.

- ① ‘곶간’을 표기할 때 ‘곶’의 종성 표기는 현재의 로마자 표기법과 예일표기법이 같겠군.
- ② ‘장기곶’을 표기할 때 예일 표기법에서는 어두의 ‘ㅈ’과 어말의 ‘ㅈ’의 표기가 다르겠군.
- ③ ‘눈앞’과 ‘직업’을 표기할 때 현재의 로마자 표기법에서는 어말 자음의 표기가 다르겠군.
- ④ ‘국민’을 표기할 때 첫음절의 종성 표기는 매켄-라이샤워 표기법과 예일 표기법이 다르겠군.
- ⑤ ‘대어’를 표기할 때 어두 자음의 표기는 현재의 로마자 표기법과 매켄-라이샤워 표기법이 같겠군.

(나)



40. (가)와 (나)의 매체가 지닌 특성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필자와 독자가 시·공간의 구애 없이 직접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 ② (가)는 문자와 이미지, 동영상 등의 시청각 자료를 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 ③ (나)는 독자가 검색한 기사들을 제공할 때 사건의 중요도에 따라 제공 순서를 정한다.
- ④ (나)는 컴퓨터나 스마트폰과 같은 다양한 매체 환경에서 기사를 검색할 수 있다.
- ⑤ (가)와 (나)는 특정한 독자가 원하는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41. (가)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진행형 표현을 통해 화제와 관련한 문제 상황이 현재에도 발생하고 있음을 드러내었다.
- ② ㉡: 지시 표현을 활용하여 이어질 사건이 앞에서 언급한 내용이 원인이 되어 발생했음을 나타내었다.
- ③ ㉢: 동일한 문장 성분의 불필요한 반복을 피하기 위해 주어를 생략하였다.
- ④ ㉣: 전문가의 견해를 직접 인용하여 기사에 활용한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려 하였다.
- ⑤ ㉤: 접속 표현을 사용하여 앞에서 예상한 것과 상반되는 결과가 일어났음을 표현하였다.

42. <보기>를 참고하여, (가)와 (나)에 대해 판단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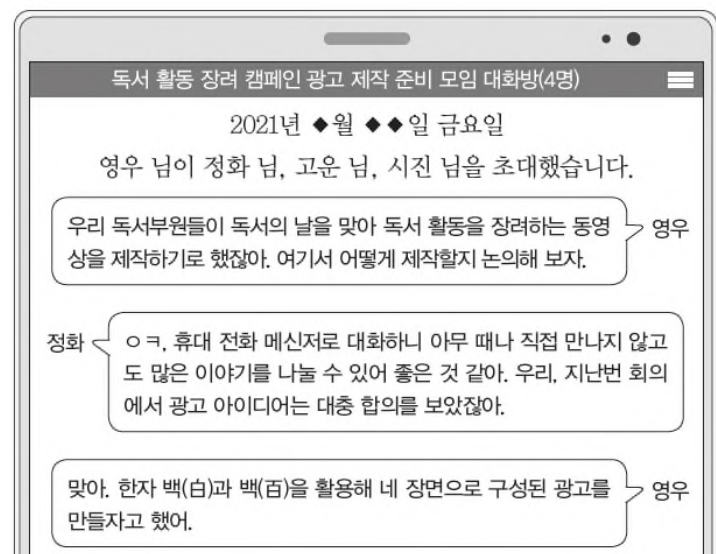
<보 기>

흔히 뉴스는 객관적 정보의 전달을 목적으로 한다고 알고 있지만, 실제로 언론사에서는 뉴스 기사를 읽는 독자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다양한 장치를 활용한다. 뉴스 편집자는 언론사의 입장에 따라 신문에 어떤 기사를 실을지부터 결정한다. 그리고 실을 기사에 대해서는 중요도에 따라 기사의 위치나 표제의 크기를 결정한다. 기사가 상단에 있을수록, 표제가 클수록 언론사가 중시하는 기사라 할 수 있다. 기사를 쓸 때에도 각 언론사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 사용할 어휘와 활용한 자료나 사례를 선정한다.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뉴스도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기사를 제공하지만, 독자가 원하는 기사만을 골라 읽는다는 점에서 종이 신문보다는 편집자의 역할이 제한적이다.

- ① (가)에서는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서 활동하는 아동’에 대한 기사가 다른 두 기사에 비해 상단에 배치되었다는 점에서 언론사가 더 중요하게 여기는 기사라고 할 수 있군.
- ② (가)의 ‘미세 먼지’와 ‘지방의 작은 학교’에 관한 기사가 (나)에 없는 것은 포털 사이트의 편집자가 아니라 독자가 어떤 기사를 읽을지를 결정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군.
- ③ (가)와 달리 기사들의 표제 크기가 다르지 않은 (나)의 ㉠~㉣는 표제만으로는 어떤 기사가 편집자가 중시하는 기사인지는 파악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군.
- ④ (가)와 (나)에서는 모두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서 활동하는 아동’에 대해 독자가 긍정적인 인식을 갖도록 하기 위해 이와 관련한 사례를 선택하여 활용하였다고 할 수 있군.
- ⑤ (나)의 ㉠에서는 ‘우려’라는 말을 사용하고, ㉡에서는 ‘현명’이라는 말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 대한 아동의 인식에 대해 두 언론사의 대립적 입장을 파악할 수 있군.

[43~45] (가)는 도서반 학생들이 캠페인 광고를 제작하기 위해 휴대 전화 메시저로 나눈 대화이고, (나)는 (가)를 바탕으로 ‘영우’가 작성한 광고의 스토리보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정답 및 해설

• 2회 •

정답

1	⑤	2	⑤	3	①	4	③	5	③
6	②	7	④	8	⑤	9	②	10	①
11	④	12	③	13	⑤	14	⑤	15	②
16	⑤	17	④	18	①	19	②	20	⑤
21	③	22	②	23	③	24	③	25	⑤
26	②	27	④	28	⑤	29	②	30	①
31	③	32	④	33	③	34	③	35	

해설

[01~03] (독서 이론) 「노수신과 류성룡의 독서 방법」

1. [출제의도] 핵심 내용의 파악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이 글의 내용에 따르면, 서에 류성룡은 노수신의 독서법에 반대하며 독서는 마음으로 하되 마치 밭을 경작하는 사람이 조금씩 조금씩 땅을 일구는 것처럼 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류성룡은 정성을 다해 책의 내용을 하나씩 하나씩 정밀하게 이해하며 읽는 자세를 강조한 것을 알 수 있다.

2. [출제의도] 독서 방법의 적절성 평가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이 글의 글쓴이는 책의 의미를 내 것으로 만들어 이해하기 위해 같은 책을 반복해서 읽는 노수신의 독서 방법을 중시하고 있다. 하지만 <보기>에서는 정보의 양이 크게 증가한 정보 시대에는 많은 양의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러므로 정보 시대에는 한 권의 책을 천만 번이나 반복하여 읽는 노수신의 독서 방법으로는 정보 시대에 필요한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터득할 수 없으며 결과적으로 정보 사회의 급속한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을 알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이 글의 글쓴이가 중시하는 노수신의 독서 방법에는 실제 상황과 동떨어진 관념적 사고에 치우치도록 하는 독서 방법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 ② 이 글의 글쓴이가 선호하는 노수신의 독서 방법은 같은 책을 여러 번 읽어 그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고 독서를 방해하는 번잡한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다. 따라서 책의 내용을 이해하는 마음을 경직되게 할 것이라는 내용과는 무관하다.
- ③ 노수신의 독서 방법에는 책에 담겨 있는 내용을 편향되게 이해하도록 하는 독서 방법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 ④ 노수신은 같은 책을 반복하여 읽음으로써 그 의미가 자신의 것이 된다고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책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함으로써 정보 시대의 여러 문제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할 것이라는 결과는 적절하지 않다.

3. [출제의도]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많은 사람 앞에서 책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같은 책의 내용을 여러 번 읽고 확실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갑이 노수신의 방법대로 책을 읽은 것은 적절한 독서 방법을 선택한 것이다. 책을 통해 마음을 다스리고 교훈을 얻으려 할 때는 책의 한 구절 한 구절에 집중하고 마음을 다해 읽는 자세가 중요하다. 그러므로 을이 류성룡의 방법대로 책을 읽은 것은 적절한 독서 방법을 선택한 것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병: 노수신의 방법은 한 권을 많이 익는 것이므로 책을 여러 권 읽고 독후감을 제출해야 하는 상황에서 선택하기에 적절한 방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
- 정: 서점에서 책을 고를 때는 책 내용을 처음부터 가볍게 훑어보며 중간중간 펼쳐서 읽어보는 방식이 어울린다. 한 구절 한 구절 정성스럽게 읽는 류성룡의 방법은 적절하다고 볼 수는 없다.

[04~09] (사회) (가) 박영욱, 「루소의 사슴 사냥 게임과 국제 정치에 대한 견해」

<연계 : 수능특강 개념학습 02강 - 구성주의 국제 정치학>

4. [출제의도] 설명 방식 파악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이 글은 루소의 이론에 제시된 개념인 사슴 사냥 게임에 대해 설명하고 국제 정치의 질서와 평화 유지를 위해서 사슴 사냥 게임, 즉 상생과 협력을 도모해야 한다는 내용을 서술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루소의 이론 중 일부에 대해서 설명 하고 있다. 루소의 이론이 출현하게 된 시대적 배경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 ② 루소의 이론에 제시된 개념과 루소의 견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루소의 이론에 대한 서로 다른 평가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 ④ 국제 정치에서 최수의 딜레마가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있으나 이 문제의 실태를 보여 주고 있지는 않다.
- ⑤ 루소의 사슴 사냥 게임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한 사례를 제시하고는 있으나 사례를 통해 루소의 이론의 의의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루소의 이론이 계승되고 발전되어 온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5. [출제의도] 세부 정보의 파악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4문단에서 '국가는 이성보다는 '자기편애'라는 강한 열정에 따라 행동한다.'라고 언급하면서 국가는 '인접 국가의 협력이 보장되기 전까지 무한한 권력을 추구한다.'라고 말하였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3문단에서 사슴 사냥 게임을 설명하면서 '사슴 사냥의 상황에서 기대 이익은 행위자를 기준으로 하여 매겨'진다고 언급하고 있다.
- ② 3문단에서 '어느 한쪽이 손해를 보면 다른 쪽이 이익을 보게 되는, 행위자의 최적의 선택이 다른 쪽 행위자의 선택에 의존하고 있는 치킨 게임'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 ④ 5문단에서 '루소는 사회 계약을 통해 만들어진 인위적 정치체인 국가에게서 합의된 의지가 도출되기는 어렵다고' 보아 보장자가 필요하고, 이 보장자가 '국가 연합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 국가 연합의 결정을 개별 국가가 따라야 하는 것이므로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⑤ 2문단에서 카르노의 열기관의 열효율은 두 작동 온도에만 의존한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4문단을 볼 때, 칼로릭 이론의 오류는 톰슨에 의해 밝혀졌는데, 톰슨은 열기관의 열효율의 오류를 지적한 것이 아니다. 이는 클라우지우스의 증명으로 유지되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2문단에서 '열기관은 높은 온도의 열원에서 열을 흡수'하고 '열기관 외부에 열을 방출하며 일을 하는 기관'으로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열기관은 외부로부터 받은 일을 열로 변환하는 것이 아니다.
- ② 2문단에서 '물의 양과 한 일의 양의 비가 높이 차이에만 좌우되는 것에 주목'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물의 온도 차이'에 비례한다는 진술은 맞지 않다.
- ③ 1문단에서 칼로릭 이론은 열을 '질량이 없는 입자들의 모임'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차가운 쇠구슬이 뜨거워졌다고 해도 쇠구슬 질량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할 수 있다.
- ④ 1문단에서 칼로릭은 '온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흐르는 성질'을 갖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온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흐른다는 진술은 맞지 않다.

15. [출제의도] 생략된 정보 추론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② 카르노에 따르면 열기관은 높은 온도에서 흡수한 열 전부를 낮은 온도로 방출하면서 일을 한다고 보았다. 하지만 줄이 입증한 사실에 따르면 열과 일이 상호 전환될 때 열과 일의 에너지를 합한 양은 일정하게 보존된다. 따라서 칼로릭 이론으로는 열기관이 한 일을 설명할 수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3문단을 볼 때, 화학 에너지, 전기 에너지 등은 등가성을 가지고 상호 전환될 수 있다. 또한 열과 일의 상호 전환을 볼 때 '화학 에너지와 전기 에너지는 서로 전환될 수 없다'라는 진술은 맞지 않다.
- ③ a는 줄의 에너지 보존 법칙과 관계된 것으로 에너지의 방향성과는 관계가 없다.
- ④ a는 열효율에 관한 카르노의 이론에 대한 지적이 아니라 카르노가 활용한 칼로릭 이론에 대한 톰슨의 지적이다.
- ⑤ a는 칼로릭 이론에 대한 톰슨의 지적이다. 다만 4문단에서 클라우지우스에 의해 열기관의 열효율에 대한 카르노의 이론이 지지되고 있다.

16. [출제의도] 내용의 비판적 이해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⑤ 3문단에서 일과 열은 상호 전환 가능한 물리량으로서 등가성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상호 전환될 때 에너지의 총량은 변하지 않는다는 에너지 보존 법칙이 입증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5문단에서 '열기관에서 열 전부를 일로 전환할 수 없다는, 즉 열효율이 100%가 될 수 없다는 상호 전환 방향에 관한 비대칭성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보기>를 볼 때, 열기관의 '열의 양(A)'과 '일의 양(B)'의 관계를 구하면 그 값은 100%를 절대로 초과할 수 없고 오히려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때 열 전부를 일로 전환할 수 없다는 것은 열손실을 말하므로 '열기관이 흡수한 열의 양과 두 작동 온도'는 그 값과 상관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5문단을 볼 때, 값은 두 작동 온도의 차이가 일정한 것과 상관없이 줄이 구한 열의 일당량과 같지 않고 작다.
- ② 5문단을 볼 때, 값은 줄이 구한 열의 일당량과 같지 않고 작다.
- ③ 5문단을 볼 때, 값은 흡수한 열의 양과 상관없이 줄이 구한 열의 일당량보다 커지는 것이 아니라 작다.
- ④ 5문단을 볼 때, 값은 두 작동 온도의 차이와 상관없이 줄이 구한 열의 일당량보다 커지는 것이 아니라 작다.

17. [출제의도] 어휘의 문맥적 의미 파악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④ ㉔은 '기대에 맞지 아니하거나 일정한 기준에서 벗어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그는 상식에 어긋나는 일을 한 적이 없다.'에서의 '어긋나다'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㉑은 '무엇이라고 가리켜 말하거나 이름을 붙이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웃음은 또 다른 웃음을 부르는 법이다.'에서 '부르다'는 '어떤 행동이나 말이 관련된 다른 일이나 상황을 초래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 ② ㉒은 '어떤 것을 소재나 대상으로 삼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그는 익숙한 솜씨로 기계를 다루고 있었다.'에서 '다루다'는 '기계나 기구 따위를 사용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 ③ ㉓은 '액체 따위가 낮은 곳으로 내려가거나 넘쳐서 떨어지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이야기가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에서 '흐르다'는 '어떤 한 방향으로 치우쳐 쏠리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 ⑤ ㉕은 '어떤 일이 일어나다'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하늘을 보니 당장이라도 비가 오게 생겼다.'에서 '생기다'는 '일의 상태가 부정적인 어떤 지경에 이르게 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18~23] (갈래복합) (가) 정희성, 「한 그리움이 다른 그리움에게」 / (나) 이육사, 「황혼」 / (다) 작자 미상 「가시리」
 <연계 : 수능특강 적용학습 현대시 02강 - 황혼>
 <연계 : 수능완성 실전 모의고사 3회 - 가시리>

18. [출제의도] 공통점 파악하기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① (가)의 화자는 당신이 부재하는 현재의 상황에서 당신을 기다리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나)의 화자는 현재 골방이라는 공간에서 황혼을 맞이하며 고독한 존재들을 포용하려 하고 있다. (다)의 화자는 임과의 이별이라는 현재의 상황에서 임을 보내며 임이 다시 돌아오길 바라고 있다. 따라서 (가)~(다)의 공통점은 '현재의 상황에 대한 화자의 대응 방식이 드러나 있다.'이다.

19. [출제의도] 시의 구조와 시상 전개 방식 파악하기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② (가)시는 [A], [C]에서 당신과 내가 하나 되는 상황을 가정하고 있는데 이는 [B]에서 시련과 고난을 이겨내는 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된다. 또한 [C]에는 [A]의 '당신과 내가 하나 되는 상황에 대한 가정'이 반복되고 있어 [A]의 정서를 강조하면서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0. [출제의도] 유사한 두 시어를 통해 화자의 정서 파악하기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⑤ ㉑은 '당신'의 부재라는 개인적 상황에서 비롯되며, ㉒은 인간은 외로운 존재라는 인간에 대한 보편적 인식에서 비롯된다.

21. [출제의도] 제재를 중심으로 작품 감상하기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③ 화자가 '뜨거운 입술'로 '황혼'의 손에 입 맞추려는 의도는 우주와 대지를 하나로 연결하는 황혼을 맞이하여 의지할 데 없는 고독한 존재들을 포용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보기>를 통해 '황혼'은 아침의 여명처럼 시작과 끝이 융합하는 시간이라는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화자가 '황혼'을 기다리며 내일도 푸른 커피를 걸겠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아침의 여명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22. [출제의도] 주제와 관련한 반응의 적절성 파악하기

- ① 위 글의 ‘지경’은 부인 ‘최씨’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었고 <보기>의 ‘도미’는 부인의 정절에 대해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즉, ‘지경’의 애정과 ‘도미’의 믿음은 모두 인물이 시련을 당하게 되는 원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지경’이 부인의 정절을 지키려다가 시련을 당한다는 감상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② ‘최공’은 임금의 전교를 받고 ‘지경’과 ‘최씨’를 이별하게 하려는 계책을 내놓는다. 그러나 <보기>의 ‘신하’는 임금의 명을 따른 것일 뿐이다.
- ⑤ <보기>의 ‘개루왕’은 ‘도미’와 ‘아내’를 이별시키는 계책을 자신이 직접 세우고 또한 이별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상(上)’은 ‘개루왕’과 같은 계책을 자신이 직접 세우지 않았다.

31. [출제의도] 상황에 어울리는 한자 성어를 찾을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③ ㉠은 지경과 박씨가 서로 마주대할 일이 없을 정도로 미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두 사람의 사이는 매우 나쁜 관계로 ‘견원지간(犬猿之間)’이라 할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막역지간(莫逆之間) : 허물이 없는 아주 친한 사이.
- ② 문경지교(刎頸之交) : 생사를 같이할 수 있는 아주 가까운 사이.
- ④ 수어지교(水魚之交) : 아주 친밀하여 떨어질 수 없는 사이.
- ⑤ 관포지교(管鮑之交) : 아주 친한 친구 사이.

[32~34] (고전시가) 박인로, 「누항사」
<연계> : 수능특강 적용학습 고전시가 06강 - 누항사>

32. [출제의도] 표현상 특징 파악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④ [A]와 [B]는 모두 화자가 처한 부정적 상황을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A]는 소를 빌리러 간 화자와 소 주인이 대화를 나누는 형식으로 전개된 반면, [B]는 화자의 내적 독백의 형식을 통해 전개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A]는 화자가 소를 빌리기 위해 소 주인집에 찾아가서 나눈 대화 장면으로, 공간의 이동에 따른 화자의 심리 변화가 나타나 있다고 보기 어렵다.
- ② [A]는 이미 일어난 일과 현재의 상황을 중심으로 대화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가정적 상황을 통해 화자의 가치관이 드러난다고 보기 어렵다.
- ③ [B]에는 ‘설피설피’라는 의태어가 사용되었지만, [A]에는 의성어가 사용되지 않았다.
- ⑤ [A]와 [B]에는 소를 빌리지 못한 상황 속에서 화자가 느끼는 참담한 절망감이 나타나 있다. 따라서 [A]와 [B]에서 화자의 고양된 의지를 보여 주었다고 보기 어렵다.

33. [출제의도] 소재의 의미 파악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③ ‘먼 들’은 소 빌리기에 좌절된 ‘나’가 밤새 슬피하다 새벽녘에 창문을 통해 바라본 바깥 풍경이다. 농가 소리가 들리는 먼 들을 바라보며 화자는 자신의 한스러운 신세를 더욱 깊이 느끼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먼 들’이 화자를 유혹하는 공간으로 묘사되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으며, 이를 통해 화자의 신념 또한 느낄 수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기’ 짚는 소리는 화자가 소를 빌리지 못하고 돌아오는 길에 들게 된 것이다. 화자는 개가 자신의 초라한 행색을 보고 짚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점에서 ‘기’ 짚는 소리는 화자의 처량한 신세를 드러내 주는 소재로 볼 수 있다.

- ② ‘대승’ 우는 소리는 화자가 소를 빌리지 못하고 집에 돌아와 들게 된 것이다. 화자는 이 소리가 자신의 한을 돋운다고 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대승’ 우는 소리는 화자의 한스러운 정서를 부각하는 소재라고 할 수 있다.

- ④ ‘농가’는 화자가 소를 빌리지 못하고 집에 돌아와 들게 된 것이다. 먼 들에서 즐겁게 들리는 농가도 화자에게는 흥 없이 들린다고 했으므로, 즐거움을 느낄 수 없는 화자의 현재 심리를 부각한다고 볼 수 있다.

- ⑤ ‘소뉘’는 소를 빌리지 못하고 집에 돌아와 보게 된 것이다. 소를 빌리지 못해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어 쟁기 역시 허당 반벽에 쓸데 없이 걸려 있어야만 한다고 했다. 따라서 ‘소뉘’는 농사일을 하지 못하게 된 화자의 처지를 환기하는 소재라고 할 수 있다.

34. [출제의도] 외적 증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③ ㉢에는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어 자포자기하고 있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난다. 따라서 새로운 방안을 찾아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화자의 고뇌가 담겨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화자가 농사를 짓기 위해 직접 소를 빌리러 가서 한 말이므로, 화자가 자신의 문제를 현실 속에서 해결하려는 모습으로 볼 수 있다.
- ② ㉡은 소 빌리기가 좌절된 상황에서 실망감에 젖어 돌아오는 화자의 처량한 모습으로 볼 수 있다.
- ④ ㉣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현실 속에서 해결하지 못한 화자가 자연으로 눈을 돌려 안빈낙도하려는 모습으로 볼 수 있다.
- ⑤ ㉤에서 ‘빈이무원’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자신의 생애에 대해 ‘설은 뜻’이 없다고 한 것은 화자가 자신의 운명에 순응하며 안빈낙도하려는 모습으로 볼 수 있다.

[화법과 작문]

35	③	36	⑤	37	①	38	④	39	③
40	④	41	⑤	42	⑤	43	④	44	④
45	③								

35. [출제의도] 말하기 전략 평가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③ 발표 첫 부분의 ‘전통극과 관련된 문화유산 중 ‘예산대’를 소개’한다는 발언에서 발표의 목적은 밝히고 있으나 청중과 공유했던 경험이 드러나 있지 않으므로 발표자가 청중과 공유했던 경험을 제시하며 발표의 목적을 밝히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기이한 돌산처럼 보이는 물체를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죠?’, ‘우선, 예산대에 있는 인형들을 알아보을까요?’라는 질문을 통해 발표 내용에 대한 청중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② ‘『광해군 일기』에 사람들이 산대를 끌어냈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를 통해 이동 가능한 산대가 있다는 정보의 출처를 밝히고 있으며, ‘이 명칭은 『성종실록』에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를 통해 예산대라는 명칭에 대한 정보의 출처를 밝히고 있어 발표 내용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 ④ ‘산대는 산 모양의 큰 무대입니다.’라는 발언을 통해 발표 주제와 관련된 ‘산대’의 의미를 설명하여 청중의 이해를 돕고 있다.
- ⑤ 발표 마지막 부분에서 ‘여러분, 예산대에 대해 관심이 좀 생겼나요?’라는 발언과 ‘(청중의 대답을 듣고)’라는 비언어적 표현을 통해 발표에 대한 청중의 반응을 확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여러분도 기술과 예술을 접목한 전통문화의 또 다른 예를 찾아보면 좋겠습니다.’라는 발언을 통해 청중에게 바라는 바를 제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게 이익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제시하고 있다.

42. [출제의도] 건의 글쓰기 내용 점검, 조정하기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⑤ ㉠의 뒤 문장은 자전거를 타고 와서 보관대에 두었다가 다른 불일이 있어서 오랫동안 둔 채 가져가지 않으면 결국 자전거를 방치하는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 ㉡의 근거와 연결되는 주장인가라는 조건과 고려할 때 ㉠의 뒤 문장이 근거라면 ㉠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날과 그렇지 않은 날을 잘 구분해서 필요한 날만 자전거 보관대를 이용해야 한다.’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다)는 자전거 보관대를 늘리자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며 ‘실제로 외국에서는 자전거 보관대를 대폭 확대하여 자전거 보관의 양을 많이 늘렸다고 한다.’가 ㉠의 뒤 문장과 어색하게 연결되므로 ㉡를 기준으로 ㉠을 해당 문장으로 고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② (다)는 자전거 보관대의 안전한 이용과 등교 시간을 서두르는 노력을 연관시키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의 뒤 문장 과도 직접적 연관이 없는 내용으므로 ㉡를 기준으로 ㉠을 해당 문장으로 고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③ (다)는 자전거의 파손 여부를 항상 점검하는 습관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의 뒤 문장과 직접적 연관이 없으므로 ㉡를 기준으로 ㉠을 해당 문장으로 고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④ (다)는 자전거 이용이 많아 보관대가 비좁아 안전사고에 대비해야 한다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며 ㉠의 뒤 문장과 연결되는 주장도 아니므로 ㉡를 기준으로 ㉠을 해당 문장으로 고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43. [출제의도] 내용 조직 전략의 적절성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④ 예상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1문단에서 ‘미국의 한 심리학자’의 실험을 예로 들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2문단에서 확증 편향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확증 편향에 빠지지 않기 위한 방안’이라는 주제를 글을 통해 구체화하고 있으나 확증 편향의 원인에 대한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 ② ‘확증 편향에 빠지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주장’하는 글의 목적을 강조하기 위해 확증 편향의 문제점을 2문단에 제시하고 있으나, 문제점에 대한 ‘상반된 견해’를 비교한 내용은 글에서 확인할 수 없다.
- ③ 글의 목적을 분명히 하기 위해 확증 편향에 빠지지 않기 위한 ‘방안’을 3~5문단에 제시하고 있으나 ‘방안의 한계’와 ‘보완할 방향’은 글에서 확인할 수 없다.
- ⑤ 사회적 쟁점을 두고 학생들 간에 벌어진 논쟁은 글에서 확인할 수 없다.

44. [출제의도] 글쓰기 전략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④ <보기>의 내용은 천동설과 지동설의 대립을 통해 ‘집단의 의견’도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면 ‘비합리적인 의사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4문단에서 확증 편향에 빠지지 않기 위해 ‘집단 의사 결정 방법’을 거쳐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비판의 근거로 사용할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보기>의 내용은 ‘집단의 의견’도 ‘비합리적’일 수 있음을 보여 주는 것으로 이는 ‘확증 편향’이 ‘비판적 사고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 자체를 비판하는 것은 아니다.
- ② 집단 구성원 간의 상호 작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때 확증 편향으로 인한 문제를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은 (나)의 4문단에 제시된 내

용과 같은 맥락의 주장이므로 ‘확증 편향에 빠지지 않기 위한 방안’을 비판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 ③ <보기>의 내용은 집단의 의견도 비합리적일 수 있음을 보여 주는 것으로, 5문단에서 ‘책임지는 자세’를 통해 확증 편향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음을 비판하는 주장의 근거로는 적절하지 않다.
- ⑤ 확증 편향의 긍정적 측면을 주장하는 답지 진술은 (나)처럼 확증 편향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비판할 수는 있지만, 문두에서 ‘확증 편향’이 아닌 ‘확증 편향에 빠지지 않기 위한 방안’을 비판하는 글을 쓴다고 전제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비판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다. 또한 갈릴레이가 천동설에 맞서 지동설을 펼친 것이 확증 편향이 있기에 가능한 것인지도 불분명하다.

45. [출제의도] 고쳐쓰기의 적절성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③ 두 번째 문장의 내용이 앞 문장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지만, 글쓴이는 두 문장의 핵심어를 포함한 한 문장으로 교체한 것이 아니라 두 번째 문장을 삭제하였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따라서 확증 편향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를 추가하여 앞 문단과의 연결 관계를 보여 주고 있다.
- ② 첫 번째 문장의 내용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왜냐하면 고려의 ~ 있기 때문이다.’를 추가하여 제시된 방안의 긍정적 효과를 드러내고 있다.
- ④ 세 번째 문장의 내용이 ‘확증 편향에 빠지지 않기 위해 반대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는 주제에서 벗어나 문단의 통일성을 해치므로 글에서 삭제하였다.
- ⑤ ‘반대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는 주장의 설득력을 강화하는 ‘찰스 다윈’의 사례를 근거로 추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언어와 매체]

35	④	36	④	37	⑤	38	①	39	⑤
40	④	41	⑤	42	④	43	④	44	③
45	③								

35. [출제의도] 중세 국어의 음운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④ ‘△’이 종성에서 사용된 경우가 ‘날나치’와 같이 있기는 하지만 첫 음절에서 사용되었으며, ‘ㅏ’와 ‘ㅓ’의 유성음 사이에서 쓰인 것으로, 어두나 독립된 단어의 종성에서는 ‘△’이 쓰이지 않았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3, 4문단에서 ‘봉, △’ 모두 유성음 사이에서 실현되었음을 알 수 있다.
- ② 1문단에서 파열음은 유성음 사이에서 유성음화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구분하지 않지만 외국인들은 구분을 할 수 있다고 하였다. ‘바보’에서 첫 번째 ‘ㅂ’은 어두에 있으므로 무성음이지만, 두 번째 ‘ㅂ’은 유성음 사이에서 유성음화되므로 외국인들에게 다른 소리로 인식될 것이다.
- ③ 3문단에서 15세기 중반부터 ‘봉’의 소리가 [w]로 바뀌면서 ‘ㄱ/ㄷ’가 ‘봉’을 대신하며 소실되었음을 알 수 있다.
- ⑤ 5문단을 보면 ‘ㅇ’ 앞의 종성이 연철이 안 되는 이유는 ‘ㅇ’이 음가가 있었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36. [출제의도] 로마자 표기법의 주요 내용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④ ‘국민’은 비음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궁민]으로 발음된다. 예일 표기법에서는 음운 현상을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k’로 표기하지만, 매킨-라이샤워 표기법에서는 ‘ng’로 표기한다. 따라서 첫음절의 중